



빨간구두당

구병모 지음

## 다른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

‘장르소설적’ 문법 구사로 청소년과 20~30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구병모 작가가 판타지 소설집 ‘빨간구두당’을 펴냈다. 그동안 구 작가는 과감하고 도발적인 구성, 치밀한 문제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열어왔다.

모두 여덟 편의 소설이 수록된 이번 단편집은 동화와 그림 형제 민담 등을 다층적으로 엮고 변주해 독창적인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작가는 이번 작품집에서 세상은 완전한가? 선악은 완벽히 나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기존 질서에 불응하고 다른 세계를 꿈꾸는 젊은 세대의 정서를 파고든다. 이 과정에서 구 작가는 단순하고 함축적인 동화의 스토리텔링에서 감춰져 있던 부분을 꺼내 예리한 감각으로 재배치한다.

그러므로 이번 소설집은 단순한 옛이야기의 변주가 아닌 다양한 삶의 국면을 담아낸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창비·1만2000원〉/박성천기자 skypark@



파리의 우울

샤를 피에르 보틀레르 지음

## 화려한 파리의 뒤편길

신안 출신 불문학자이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황현산 평론가가 번역한 샤를 피에르 보틀레르의 산문시집인 ‘파리의 우울’이 나왔다. 보틀레르의 혁명적인 산문시가 실린 시집은 근대화의 폭력성을 혐오하면서도 파리의 물골을 사랑한 시인의 문학적 여정이 담겨 있다.

1857년 ‘악의 꽃’을 발표하고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문란케 한 죄로 기소된 보틀레르는 재판에 맞선다. 이 과정에서 ‘리듬도 각운도 없이’ ‘충분히 유연하고 충분히 거친, 어떤 시적인 산문’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번 시집에는 은유보다는 환유와 알레고리가 주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기승전결을 갖춘 전통적인 이야기의 성격도 없다. 기존의 번역본과는 차별화된 면밀하고 충실한 주해가 매 시마다 함께한다. 황현산 평론가의 보틀레르 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은 시집을 읽는 또다른 맛을 선사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박성천기자 skypark@

## 화폐의 몰락

제임스 리카즈 지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매년 놀랄 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던 중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증시는 폭락했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추가로 더 인플레이 가능성도 있다.

과연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곧 단행될 거라는 예상까지 이어지면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는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맞물려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러한 대혼란 시대에 국제금융시장의 은밀한 움직임과 손익계산을 꿰뚫어 보는 책이 나왔다.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베테랑 금융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가 펴낸 ‘화폐의 몰락’은 유례없는 금융 붕괴가 다가온다는 도발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 2015년 아마존이 선정한 최고의 책이자 경제학, 통화정책, 외환 등 3개 부문 1위에 랭크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붕괴라는 단어를 달러에 적용해 보면 종말론적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는 실용적 의미를 지닌다. 붕괴는 단지 달러의 미래 구매력에 대해 국민과 중앙은행들이 신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보유자들은 빨리 써버리거나 경질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처분하게 된다.”

저자는 “이 같은 대처 방식은 처음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자본형성의 실패로 이어진다”며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1930년대처럼)이나 인플레이션(1970년대처럼), 혹은 둘다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가올 시스템의 붕괴는 도발적인 결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사실 지난 100년 동안 국제통화시스템은 1914년, 1939년, 1971년 세 차례 붕괴되었다. 그때마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혼란의 시기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붕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자는 금, 카오스의 형태로 오거나 혹은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특히 수년 내 달러에 닥쳐올 위협으로는 금융전쟁, 디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장붕괴를 꼽는다. 닥쳐올 소용돌이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은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여러 그룹의 움직임도 상세히 담아낸다. ‘새로운 유럽’의 가치 아래 유로화를 공고히 하려는 EU 수장 독일, ‘브릭스’(브

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 걸프협력회의(GCC) 등의 초국가기구들, 미국의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권고를 따르며 유례없이 부채율을 높여가는 영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금융전쟁을 벌이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런 양상은 통화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을 기정사실화한다. 이후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저자는 새로운 통화 기준이 금이 될지(금본위제), 세계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 아니면 지역적인 준비통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저자는 한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성공 열쇠는 강한 통화나 약한 통화와 아닌 건전통화(sound currency)라고 강조한다. 즉 통화의 안정성은 국내 저축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집중해온 부가가치 기술과 교육에 건전통화가 합쳐지면, 투자 자본이 선호하는 종착지로서 한국의 성장은 증대될 것이다. 소득이득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열쇠는, 소비보다는 이러한 투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성장이 보장되면 그 대가로 소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강력한 성장은 소비가 아닌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자는 건전통화에 매력을 느낀다.”

〈울리시즈·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구한말 외교관 이한응 열사 생애 조명



나의 꿈, 들국화 동산 I·II

이민섭 지음

올해는 광복 70돌을 맞는 뜻 깊은 해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 순항 중이다. 자신을 불살라 어두운 역사를 밝히려 했던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러한 즈음에 우국지사 이한응 열사의 생애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이한응 열사의 친손자이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민섭 명예교수가 펴낸 ‘나의 꿈, 들국화 동산’은 개인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은 이한응 열사는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가 강제 체결되자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는 그 해 8월 1일 영국 정부에 영일동맹의 부당함을 들어 항의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주영 한국공사를 폐쇄하는 등 영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주권을 강탈할 음모를 획책하자 1905년 음독자결한다. 그는 죽음으로써 일제의 부당한 주권 침탈에 항거했을 뿐 아니라, 러일전쟁으로 동로 외교관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에도 혼자 공간에 남아 대한제국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두 권으로 출간된 책은 1부에는 저자의 회고를 토대로 한 한반도 역사와 그의 삶이 녹아 있고, 2부에는 조선 말기 외교관으로 활약했던 조부 이한응에 대한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3부에는 건축학 교수로 평생을 바친 저자가 건축과 디자인을 매개로 한 이야기가 담담하게 펼쳐져 있다.

무엇보다 저자가 37년 몸담았던 대학교직을 떠나며 정년퇴임이 아닌 소임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치임(致任)’저서를 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다스북스·각 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죽어서도 편히 잠 못드는 아인슈타인



무덤의 수난사

베스 러브조이 지음

세계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시신은 본인의 뜻에 따라 화장되었지만 천재의 뇌는 연구를 빌미로 부검자에게 강탈당했고 수십 년간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다.

절도 침입으로부터 유해를 지키기 위해 링컨의 관은 16차례나 옮겨 다녀야 했고 지진 가족은 그의 관을 지하 3m의

납골당에 넣고 그 위에 1.8t의 시멘트를 붓게 했다.

도둑맞고 불태워지고 절여지고 박제되고...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한 유명 인물들의 ‘시신’이 겪은 기상천외한 운명을 담은 ‘무덤의 수난사’가 출간됐다. 작가지자 연구가인 베스 러브조이는 죽음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유명인들의 시신에 관한 자료를 모아 집필했고 아마존 선정 2013 최고의 책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차르트에서 히틀러까지 역사적 인물들이 죽고 나서 겪어야 했던 기상천외한 모험을 그들의 삶과 연결해서 살펴본다. 〈뮤진트리·1만8000원〉/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일초교 ● 금남로

← 게임동 →

한화생명 ● 주한미소핑 ● 고령우치점

구.한미소핑 ● 동부소방서 ● 북경랑 한의원